

‘국가폭력’으로서의 4·3 너머 - 한림화 소설과 해방기 제주 민중/여성의 복원

김소영(제주대)

1. 한림화와 『한라산의 노을』

- 작가 한림화는 1950년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주 4·3을 지속적으로 소설화해온 대표적인 제주 작가이다.
- 그는 20여 년 전 ‘자발적 미혼모’를 선언하며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실천해온 페미니스트 작가이기도 하다.
- 1991년 출간된 국내 최초의 4·3 장편소설 『한라산의 노을』은 민주화 이행기에 국가폭력과 억압된 지역의 기억을 문학적으로 사유해낸 산물이다.
- 소설은 10여 년에 걸친 취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은폐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정사(正史)’ 쓰기의 전략을 취한다.
- 1947년 ‘3·1사건’부터 1949년 무장대 지도자 이덕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일지 형식으로 서술하며,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제주사회에서 전개된 기억투쟁, 즉 공산폭동론에 대항해 4·3을 민중항쟁으로 재의미화하려는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 4·3의 전사(前史)와 ‘민중’의 출현

1) 식민주의적 폭력의 지속과 4·3 전사의 형성

- 소설은 4·3의 발발을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주의적 지배와 경찰권력의 폭력이 누적된 결과로 제시한다.
- 1946년 복시환 사건은 미군정과 경찰의 결탁 및 부정부패가 드러난 사건으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앙권력은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으며 응원경찰을 파견한다. 이는 해방공간에서도 동일한 식민주의적 경찰 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민중들이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 소설은 1947년 3·1절 기념집회를 단순한 좌의 행사가 아닌, 외세에 의한 재식민화를 거부하는 범도민적 분노가 표출된 ‘운동’으로 묘사한다. 이때 3·1절 집회에서 벌어진 발포사건은 미군정과 결합한 국가경찰 권리가 제주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제주 민중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한 과정의 분기점으로 배치된다.

2) ‘박탈’의 경험과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제주 ‘민중’

- 해방기 제주 민중은 두 가지 차원의 박탈을 경험한다. 첫째로 생존 기반과 공동체 질서가 붕괴되는 물질적 사회적 박탈이며, 둘째로 ‘빨갱이’ 낙인을 통해 정치적 주체성과 발언권을 상실하는 상징적 박탈이다.
-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박탈을 민중의 무력화로만 그려내지 않으며, 제주 민중이 생존권과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을 매개로 탈주체화(또 다른 박탈)되어가며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포착한다.
- 특히, 소설은 함종민(실존 인물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이 민중들을 ‘단결적 집단행동’으로 이끌었음을 강조한다.
- 함종민의 부모나 ‘양생돌’처럼 이념에 무지했던 “무지렁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이웃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비로소 ‘민중’이라는 저항 주체로 재구성된다.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순간 속에 생겨난 이러한 연대는, 역사적 이행기의 시간에 지금까지와 다른 ‘해방’의 시간을 상상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의 장소가 된다.

3. 지역저항이자 민족운동으로서 4·3

- 한림화는 4·3을 단일한 의미로 환원하지 않고, 지역적 저항과 민족사적 과제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역사를 제시한다.
- 소설은 4·3을 “불의를 보면 일어서는” 제주의 역사적 저항 정신(1901년 신축항쟁 등)의 계승으로 파악한다. 이는 외부세력(육지 경찰,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자치적·자위적 생존 전략으로 4·3을 위치시키며, 당대 제주 문인들이 공유해온 기억투쟁의 방식을 보여준다.
- 동시에 소설은 4·3을 지역 봉기를 넘어,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독립과 완전한 해방을 염원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으로 제시한다. 1947년 3·1집회 참가자들의 ‘완전독립’ 외침을 1919년 만세운동과 연결함으로써, 4·3을 한반도 탈식민 해방운동의 계보에 편입시킨다.
- 작가는 남로당 지시나 구체적인 이념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었던 제주 민중들의 열망을 강조함으로써 ‘빨갱이’ 프레임을 넘어선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3은 분단·냉전 체제에 맞선 민중 저항의 마지막 국면으로 재정립된다.
- 이러한 발상은 소설이 쓰인 당대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이행기 정의’의 문제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적 완성을 넘어, 분단 체제 및 미국 주도의 제국적 질서와도 맞물린 현재진행형의 과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4. 4·3의 여성주의적 재해석

1) 여성해방운동으로서의 4·3과 그 전사

- 무엇보다 『한라산의 노을』은 4·3과 그 이전의 제주 항쟁사를 ‘인간해방’이자 ‘여성해방’의 운동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4·3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의의를 지닌다.
- 소설은 “잠수(제주해녀의 옛명칭)들은 불턱(제주해녀 전용 바닷가의 야외탈의장)에서, 밭일하는 아낙네들은 수눌음에서, 일상 하는 게 의논”이었다는 ‘불미대장’의 발언을 통해, 제주 사회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들이 실은 누구보다 평등한 세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토론해온 주체였음을 부각한다.
- 특히, 4·3의 근원을 1930년대 초 잠수항일투쟁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작가의 관점은 여성들의 탈식민 해방운동과 4·3항쟁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는다.

2) 비폭력·돌봄 윤리와 여성 주체의 대안적 정치성

- 작가는 남성 중심의 폭력적 정치구조(좌우를 막론한 학살)에 대항하여, 여성성이 체화한 ‘비폭력’과 ‘돌봄’, ‘살림’의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여성 주체의 발화와 행위를 통해 이를 보여준다.
- 예를 들어, 청산리(실제 성산리) 잠수회장인 ‘정삼봉이 각시’는 반공 정권의 폭력과 대항 세력의 폭력을 동일선상에 비판하며, 새 세상을 향한 ‘운동’의 중심에는 “생명 소중함을” 아는 여성의 서야 함을 강조한다.
- 잠수 ‘김순덕’은 여성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항쟁에 참여한 주체들이었음을 부각하는 존재로, 그가 동료(무장대원)들의 살상을 눈물 흘리며 지켜보는 장면은 폭력의 악순환을 비판하고 이념 대신 인간성을 우선시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대변한다.
- 이덕구의 처 ‘홍희복’은 남편의 무장투쟁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살자고 하는 일에 죽음은 있을 수 없다”며 입산 대신 자신의 장소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을 실천한다.
- ‘빌네’가 마을을 배신한 ‘밀고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겠다며 강한 분노 속에 순경을 물러나게 하는 장면은, 압도적인 생명 지향의 정신이 ‘빨갱이’의 몸을 비인간화하고 통제하는 반공국가의 구조적 폭력을 넘어서는 순간을 상상하게 한다.

5. 당대 문학장 속 위치와 의의

- 『한라산의 노을』은 4·3항쟁에서 민중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념적 각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냄으로써, 1980년대 민중문학의 이념 및 남성중심적 경향과는 변별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 나아가 작가는 폭력적(남성성) 정치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폭력적(여성성) 돌봄 윤리에서 찾음으로써, 민중 담론 속에 하위위계화되어 왔던 여성성을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으로 전면화한다.
- 이러한 시도는 탈정치적 개인성이 강화된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장 및 여성 문학장의 흐름과도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위치를 점한다.
- 『한라산의 노을』은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며, 그 질문이 지역의 기억과 민족/여성의 목소리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문학적으로 증언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